

## 한우

### 한우협, 자조금 사업 일환 전국 각지서 나눔 행사 전개



지난해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한우인들의 나눔 활동은 그 어느 해보다 뜨거웠다. 전국 한우협회(회장 이강우)는 한우자조금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우나눔행사가 전국 각지에서 펼쳐졌다고 밝혔다. 한우나눔행사는 소외된 이웃에 한우를 나눠주는 한우나눔과 사랑의 한우국밥 사업으로 추진됐다. 한우협회는 한우나눔 행사를

통해 총 2만8천271kg의 한우를 소외된 이웃에게 전했다. 이는 1인당 200g을 기준으로 14만1천355명에 혜택이 돌아간 것이다. 이와 함께 사랑의 한우국밥 나누기 행사는 전국적으로 43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총 4만2천70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한우나눔행사는 한우산업이 국민과 함께하는 산업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한우농가들이 소외된 이웃과 한우를 통해 정을 나눔으로써 사회공헌과 사랑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2014. 01. 09]

## 한돈

### 한돈자조금, 전국 소외계층에 한돈 30만인분 나눔



설을 앞두고 양돈농가들의 '통 큰' 나눔온정이 얼어붙은 소외계층의 마음을 녹이고 있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병규)는 양돈농가들의 거출금과 함께 2월 7일까지 한돈드림캠페인을 통해 판매되는 한돈선물세트 수익금 일부를 더해 모두 30만인분(60톤)에 달하는 국산돼지고기 '한돈'을 전국의 소외계

층에게 전달하고 있다. 관리위는 그 일환으로 지난 1월 16일 이병규 위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농림축산식품부 김종구 축산경영과장이 서울역 쪽방촌(용산구 동자동)을 찾아 '사랑애 한돈증정식'과 함께 한돈도시락을 배달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특히 소외이웃들과 함께 한돈으로 만둣국과 보쌈을 만드는 등 설맛이 마을 잔치를 열어 훈훈한 화제가 되기도 했다. 관리위는 이에 앞선 이날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이병규 위원장과 토니오 셰프, 정아름 헬스 트레이너 등 한돈 홍보대사 등이 참석, '한돈 북만두' 등 다양한 설음식을 준비하면서 사랑과 나눔의 실천을 다짐했다. 이병규 위원장은 "양돈농가들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 10여 년간 한돈나눔행사를 통해 30억원 이상을 소외계층에 후원해 온데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한돈이 받은 국민들의 사랑과 성원을 소외이웃과 함께 나누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리위는 올해 서울을 비롯한 전국 10개 시도에 각 4천500만원씩 모두 4억5천만원의 자조금을 활용해 소외계층 전달사업을 전개한다는 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2014. 01. 20]

## 양계

### 계육협회, 체험교실 진행으로 국산 닭고기 우수성 홍보



한국계육협회(회장 정병학)는 지난 1월 14일 인천 남동구 소재 제니스 유치원에서 국산 닭고기의 효능과 우수성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홍보하는 '건강 닭고기 영양 튼튼 꼬꼬DAY' 체험 교실을 가졌다. 이날 10회째로 열린 건강 닭고기 영양 튼튼 꼬꼬DAY 체험 교실은 어린이 집과 유치원 등 유아교육기관의 어린이

들을 대상으로 유아 시절부터 국산 닭고기의 효능과 우수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행사로 한국계육협회의 주최로 2013년 12월부터 총 60회로 계획됐다. 국산 닭고기를 주제로 한 인형극과 건강 체조, 닭고기 점심식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구성된 이날 체험 교실은 SBS 생활경제 프로그램으로도 방영돼 국산 닭고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됐다. 한국계육협회 관계자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거부감 없는 국산 닭고기 홍보를 진

행함으로써 더욱 폭넓은 소비자층에게 닭고기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축산경제신문 박정완 기자 [2014. 01. 17]

낙농  
육우

## 육우자조금, 대의원회...의무자조금시대 막 열어



침체기를 견고 있는 육우산업에 육우의 의무자조금이 새 희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월 9일 육우의무자조금 대의원회가 개최되면서 육우의무자조금 시대가 그 희망찬 첫 출발을 알렸다. 이날 대의원회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자조금 거출금은 두당 1만2천원으로 결정됐다. 정부

지원을 포함한 자조금 사업규모를 감안해 거출금을 두당 1만5천원으로 올리자는 의견과 농가들의 현실을 감안해 두당 1만원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 모두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적정금액을 1만2천원으로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두당 거출금이 1만2천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올해 자조금 사업규모는 총 10억원(거출율 100% 가정시)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육우도축 예상물량이 5만두, 육우자조금 거출이 시작되는 3~12월 육우도축 예상물량은 4만2천두 정도다. 이에 따라 농가거출금이 5억원, 여기에 정부매칭펀드 5억을 포함한 10억원이 올해 육우자조금의 조성 예상액이다. 이날 대의원회에서는 초대 관리위원장으로 최현주 현 낙농육우협회 육우분과위원장을 선출하고, 대의원회 의장으로는 경기 안성의 박대안씨를 선출했다. 감사로는 경기 안성의 정덕훈씨와 김천축협 임영식조합장을 선출했다. 관리위원회는 위원장1명, 선출직 관리위원 13명, 당연직 관리위원 7명을 포함해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선출된 관리위원은 다음과 같다.

▲경기=조천호, 강병권 ▲강원=황선노 ▲충남=임종성 ▲전북=심동섭 ▲경남=정용범 ▲제주=홍동석 ▲충북=전규식, 신관우 ▲경북=조재성, 박남용 ▲전남=차상순, 강동준 (이상 13명)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2014. 01. 13]



국내산 아카시아꿀이 처음으로 일본 수출길에 올랐다. (사)한국양봉협회(회장 조균환)와 (주)현대 AM(대표 김현대)은 식품 검사요건이 철저하고 까다롭기로 유명한 일본과의 수출 협상을 완료하고 최근 부산항에서 아카시아꿀(20t) 선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김현대 대표는 “국내에서 생산된 아카시아꿀이 일본의 수입위생검사를 통과함으로써 품질에 대한 우수성이 입증됐다”며 “국내산 벌꿀의 일본 수출은 품질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내수시장의 안정과 가격 지지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조균환 회장은 “이번 일본 수출을 계기로 양봉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일본 수출시장 개척을 발판으로 수출국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민신문 성흥기 기자 [2014. 01. 15]

